

시선

사설

교육은 인질이 될 수 없다

도로사용료를 둘러싼 동대문구청과 학교의 해묵은 공방이 SPACE21 신축 건물을 둘러싸고 재차 점화되는 모양새다. 동대문구청은 지난달 신축 행복기숙사 사용승인 신청 당시 ‘교통영향평가’를 문제 삼았다.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의 설치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을 검토해 적절한 교통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의 골자다.

동대문구청의 요구는 말이 되지 않는다. SPACE21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도 경희대로는 존재했고 지금도 변함없다. 기숙사에 입사한 천여 명의 학생이 모두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강의실과 연구실로 사용될 신축 단과대학동은 거대 쇼핑몰처럼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시설도 아니다.

문제는 서울캠퍼스 정문으로 이어지는 경희대로가 우리학교의 사유지라는 데서 발생한다. 2012년 경희학원은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동대문구가 그간 무단 사용해 온 학교 사유지의 사용료를 낼 것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고 동대문구청은 학교에 14억여 원의 부당이득금과 매년 1억 4천만 원의 도로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액수가 액수이니만큼 동대문구청은 사용료의 감면이나 면제를 요구해왔다. 결국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기로 신축 행복기숙사와 단과대학동 건물에 제동을 걸며 이를 다시금 요구하는 것이다. 입주가 진행된 행복기숙사 역시 임시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뿐이다. 동대문구청은 단과대학동에 대해선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펴며 경희대가 궁극적으로 도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청의 행위는 교육을 인질 삼는 것이다. 학생들의 주거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자금으로 지어진 기숙사의 사용을 막아서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하기 위한 신축 단과대학 건물 사용승인을 막을 조짐을 보이는 것은 구청의 이익을 위해 학생을 불모로 삼는 것이다.

심지어 신축 건물과 도로사용료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당장 개강과 입주를 앞둔 학생들이 며칠을 불안에 떨어야 했고 나아진 환경에서 교육받길 기대했던 구성원들은 몇 번째인지도 모를 ‘다음 학기’를 기약하게 됐다. 이는 동대문구청의 폭력이다.

기실 그들이 하는 짓은 불법에 가깝다. 행정기관이 행정이행조건으로 실질적 관련이 없는 사건을 가져오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으로 금지된 행위다. 행정가들이 모인 구청이라는 조직이 이런 기본적 법률도 모를 리 없다.

그래서 경희대로를 둘러싼 법적 공방 중, 학교는 구청에 협의체 구성을 먼저 제안한 적이 있다. 국유지인 경희초등학교 부지와 사유지인 경희대로를 맞바꾸는 ‘대토’ 방식 등 학교는 이미 선택지를 내밀었다. 이를 거절하며 자충수를 둔 것은 동대문구청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구청이 지불해야 할 원금과 이자는 늘어나고 있다. 필요한 것은 동대문구청의 각성뿐이다. 동대문구청은 교육을 인질로 잡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도로사용료를 둘러싼 논쟁은 신축 건물과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후 건설적 논의를 펼쳐나가면 될 일이다. 우리학교는 동대문구와 60여년을 함께 해 왔고 앞으로도 함께 해야 할 귀중한 동반자임을 지각하길 촉구한다.

모든 학생 AWS 무료로 쓴다  
IT관련 창업 준비에 도움

미디어 여론동향 2017. 8. 21 ~ 9. 3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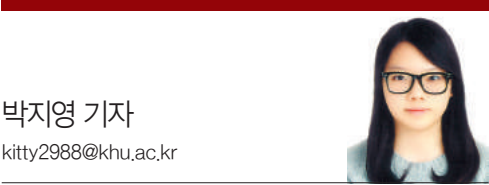
우리학교가 ‘아마존 웹 서비스(AWS)’에 가입해 학생들이 매년 100달러 상당의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무료제 공 된다/대학주보 온라인, 2017.8.25) 학교 웹메일 인증을 통해 AWS에 가입하면 전공에 상관없이 아마존이 제공하는 40여 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비용을 내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만 연결되면 마음대로 사용 가능한 고성능 컴퓨터가 하나씩 생긴 셈이다. 협력을 주도한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 조진성 단장은 “많은 IT 스타트업 기업이 초기 급진적 비용을 클라우드 서

만평



이 주의 주제 - 피해자와 가해자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 첫 번째 작품에 해당하는 ‘복수는 나의 것’을 IPTV ‘이 달의 무료 영화’ 탭에서 어쩌다 만났다. 감독과 그의 이후 작품에 비해 덜 유명한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엔 헛구역질이 나왔다. 장기적출, 전기 고문 등 구역질을 나오는 장면을 지나 영화의 대단원에선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본이었다. 영화는 선과 악의 이분법을 비웃듯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다. 러닝타임 내내 믿고 있던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고한 관계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예술은 현실을 반영한다 했던가. 취재를 하며 마음 한 켠에 있던 의심들은 조금씩 싹을 틔워 갔다. ‘절대적 피해자와 절대적 가해자는 존재하는가’.

처음 국제캠퍼스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지부장을 만나면서 반장과 소장의 갑질에 분노했다. 현장 지휘가 안 될 때마다 일삼는 폭언, 자르겠다는 협박. “무식한 것들은 청소나 하지”와 같은 참을 수 없는 막말들. 반장과 소장의 폭언과 막말 때문에 노조를 만들었다는 그들이 정말 ‘피해자’인 줄 알았다.

그러나 취재과정에서 만난 용역회사 소장과 반장은 강력한 가해자도 아니었고 절대악도 아니었다. “회사에서 제 동의도 없이 합의서를 썼다구요,

제 말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회사에서 이들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내린 것이다. 그들도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이들이 해왔던 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같은 노동자인데.’라는 생각이 스쳤다.

후에는 청소를 하시는 다른 여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신경정신과 다니면서 약까지 먹고 있다가니까. 초등학교도 아니고, 이런 왕따를 당해본 적이 없어.” 같은 단과대학에서 일하는 다른 여사님들이 이 분을 왕따 시키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견딜 수 없던 나머지 한마디 했더니 철문에 밀어 타박상까지 입었던단다. 어떤 말을 해도 꼬투리를 잡는 분위기에서 함께 쉬지도 못해 창고에서 혼자 박스를 깔고 쉬다고 했다. ‘약자는 선할 것이다’는 믿음도 무너져 내렸다. 약자일 것 같았던 청소노동자들 안에서도 선악과 권력 관계는 존재했다.

괴로웠다. 매년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었다. 영원하게만 생각했던 가해자도 피해자가 되고,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피해자도 가해자가 됐다. 강자도 더 강한 자 앞에서는 약자가 되고, 약자는 더 약한 자 앞에서 강자가 되었다. 이 먹이사슬 같은 공간에서, 절대적 강자와 절대적 약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통점은 있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 약자로 분류되는 자들이었다. 연로를 가지지 못하고 울분을 쌓아왔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쌓인 울분이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면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된다. 어차피 같은 약자다. 약자끼리 조금만 더 보듬어주며 사는 방법은 없을까.

으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으며 지속적으로 기부할 의향을 밝혔다.

강동경희대 한방병원은 효모발효물질과 한방 생약성분을 이용한 고기능성 한방화장품 ‘회완’을 개발했다.(강동경희대 한방병원, 저자극 고기능성 한방화장품 개발/국민일보 외, 2017.8.22) ‘회완’은 경희대 브랜드를 인증해 출시한 유일한 화장품으로 화학성분을 배제해 피부자극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임상시험을 통해 저자극성, 피부진정 효능, 피부보습효능, 탄력 개선 효능 등을 인정받았다.

경희대 산학협력단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정보통신기술 융합 기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지원 협약을 맺었다.(한국무역정보통신, 경희대와 MOU 체결/연합뉴스 외, 2017.8.23) 협약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수출을 보다 용이하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무역여건을 개선해나가는 데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두 기관은 상호 긴밀한 협력유지와 함께 정보통신기술 융합기술과 인재활용을 통해 지능형 디지털 무역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초를 겪으신 모든  
마봉춘 선배님들께

세시봉

이수형 (편집장)



마봉춘 선배님께.  
힘드시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지난 구 년간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나마도 이 글이 도착할 월요일엔 참고 혹은 스케이트장 출근을 뛰쳐나오신다니 차라리 다행입니다. 의욕 넘치던 당시에겐 펜을 놓는 것이 가장 고역인 일이었겠지요. 파업이 보통 일은 아니지만 심지 굳은 당신이 라면 잘 이겨내실 줄로 압니다.

김장겸이란 이름의 나쁜 친구를 사귀었을 뿐이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해하게 했던 일들이 그 친구의 농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편지는 사과문에 가깝습니다. 당신 또한 피해자라는 이야기는 최근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정작 무관심 속에 외로움을 견딜 때 당신 옆에 없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피하기만 급급했습니다. 내심 TV를 켜면 당신이 아닌 좋은 선배들이 많으니 당신 따윈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일 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당신을 망친 그 친구가 아니라 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끔 스칩니다. <공범자들>이 흥행하고, 기자들의 절절한 직장 이야기들이 화제가 되고 나서야 당신을 떠올림에 부끄럽습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지난달 돌마고 청계광장 파티에 갔습니다. 한영에 씨가 노래를 참 멋있게 부르시더군요.

또, 다행히도 당신 주변에 이미 사람이 많더군요.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왔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안 좋은 소문이 끊어질 앞던 당신인데 대단한 일입니다. 당시 어렸던 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만큼 당신이 우리와 멀어지기 전,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는 뜻일 겁니다. 아, 그날 나눠주신 사과 주스 잘 먹었습니다.

당시에겐 실례되는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상황이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일을 당한 옆 건물 친구들은 동료들의 축하 속에 제자리로 돌아왔다고요.

그중 한 분은 사장님이 썸이시라 더니 아쉽게 되신 모양입니다. 당신이 원망하고 있는 그 친구분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들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니, 당신이 돌아올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을 추억하는 사람이 가장 많을 테니까요.

처음이 아니라곤 하지만, 쉬시는 동안 힘드시 겁니다. 수년간 창고에, 혹은 스케이트장에 다리가 묶여있던 당신에게 쉼다는 표현이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겠군요. 파업 말입니다. 이번엔 함께하겠습니다. 그간 당신에게 가지 못하도록 설득해 놓은 지인들에게, 이번엔 당신의 어려움을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라면서요. 파업으로 원하시는 일 이루시고, 9시에 만납시다. 거리가 아닌, 우리 집 안방에서 만납시다. 꼭 만나서 당신이 왕년에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세요. 공영방송 정상화를 응원합니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김혜경 | 편집장 이수형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라21회)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현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